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3년 5월 1일

CUOMO 주지사, 5월 8일에 뉴욕주 최초의 관광 서밋 개최

업계 리더들이 뉴욕의 관광산업 성장의 방법에 대해 논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돕기 위해 관광업계 리더, 사업체 소유주,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최초의 뉴욕주 관광 서밋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관광 서밋은 2013년 5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Albany의 Hart Lounge에서 열립니다.

Cuomo 주지사는 “Finger Lakes의 와인 트레일부터 롱아일랜드 해변에 이르기까지 뉴욕주는 전세계 관광객을 위한 최고의 명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뉴욕주에서 5번째로 규모가 큰 산업이며 중요한 경제 원동력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밋으로 다른 산업을 위한 실제적 성과를 거두고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며 뉴욕에서 사업운동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서밋에서는 관광 부문을 활성화하고 뉴욕주에서 활용할 모든 자원을 활용할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업계와 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임명된 후부터 뉴욕주의 다양한 자산과 명소를 소개할 새로운 마케팅 및 광고 캠페인을 포함하여 주 차원의 관광을 활성화할 다양한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뉴욕주에서 5번째로 고용 규모가 큰 관광산업은 2011년에 694,000개의 일자리를 통해서 166억 달러의 인건비를 지불했습니다.

2011년에만 뉴욕주에는 2억 2백 만 명의 해외 및 국내 관광객을 맞이했는데 2011년보다 8.3%나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들은 관광산업에서만 539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주 및 지방세로 69억 달러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관광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Cuomo 주지사는 최근에 뉴욕주의 자연 경관과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강조하고 뉴욕주 북부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I Love My Park Day, New York Open for Fishing and Hunting, Path Through History 및 Adirondack Challenge와 같은 새로운 운동을 몇 가지 시작했습니다.

서밋이 열리는 동안 주지사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이 뉴욕의 관광산업을 주 전체에서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Path Through History,

Korean

다시 시작된 'I Love NY' 마케팅 캠페인, 와인, 맥주 및 스피리트 관광 운동 등을 포함하여 Cuomo 주지사가 취임한 후 관광 운동을 업데이트하게 될 것입니다. 주지사는 또한 뉴욕주 마케팅 최고 책임자와 임원, 뉴욕주 관광협회의 새로운 회장인 Cristyne Nicholas, Loews Hotels & Resorts의 회장 겸 US Travel Association의 명예 회장인 Jonathan Tisch, 주, 국내 및 국제 관광 리더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또한 오후에 중요한 관광산업 분야에 대한 몇 가지 주제별 혁신적 세션을 열고 업계 리더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제에는 스포츠와 이벤트 중심의 관광, 농업, 문화, 역사관광 등과 같은 흥미 중심 및 니체 관광, 해외 관광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